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간)

#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이차저도모임 모은금리  
내달리는 약탈금리  
■고객별 수혜금리 정보제공  
모든 금융상품 다양한  
대응서비스 제공

문의전화 09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노태평/발행인 겸 편집인 김공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2월 2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 금주의 법구

지비심이 곧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 (화엄경)

### 법회 안내

성주암 (02)877-7180

거사법회 매주 일 오전8시  
연화법회 매월3일(음) 오전11시  
선녀법회 매월 1·3주 일 오후2시  
천수경강이 1·3주 일 오전10시

인정사 (02)292-2439

인양법회 매월10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2일(음) 오전11시  
향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아미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보문사 (02)928-3797

합창법회 매주 목 오후2시  
향년법회 매주 보 오후8시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아미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성흥사 (02)336-2052

일련법회 매주 보 오전8시30분  
경가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아미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향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선녀법회 매월 1·3주 일 오후2시  
경기 동원정사 (0346)593-7584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자비법회 매월5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2일(음) 오전11시  
아미타법회 매주 보 오후3시  
인연 흥천사 (032)602-6068

화엄기도회 매월1일(음) 오전11시

합창법회 매주 금 오후2시  
아미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선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대구 은척사 (053)653-1572

거사법회 매월 1·3주 수

오후7시30분  
향년법회 매주 월 오후7시  
중아법회 매주 일 오후1시  
아미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편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 강사 양성 제도화 한다

### 인재들 강원보다 대학 선호...인력 절대 부족 직지사에 특수학림 개설 '전통강맥 잇기' 추진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이 승가교육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기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전문강사 양상을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한다. 이에 발맞추어 종단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전문강사 양성비 30여억원을 책정하는 등 정통 강맥 잇기에 종단 차원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원은 내년 5~6월경 대강배 관음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직지사에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특수학림을 개설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교육원은 우선 입학자

격·교과목·수확년 등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 전국 승가대 강사들 교육현장에 있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개최된 조계종 제119회 정기중앙총회에 보고된 지방 승가대 현황(95년 11월 현재)에 따르면 기본교육기관적인 15개 지방승가대 중 직지사 사와 법주사는 강주(학장)가 공석이고, 전체 학인수 880명에 비해 강사(강주·중강 포함)는 4명으로 학인 21명당 강사 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율은 지방승가대(강원)가 다른 교육기관과는 달리 계통해 3화



**"온정으로 피어나는 깨달음의 꽃"** 조계종 총무원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하나로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돕기 및 소외된 이웃돌아보기 운동'을 시작했다. 총무원장 율주스님은 지난 14일 혜명보육원과 영로원을 방문, 어린이와 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맞이를 위한 선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운동은 내년 1월초까지 전국 본·일사를 중심으로 전개돼 따뜻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더욱 널리 펼쳐나갈 계획이다. (사진·고영매 기자)

### 성보전시관 건립추진위 구성

#### 용주사등 8곳 부지선정등 기준 마련키로

조계종은 지난 14일 8개 본사와 총무원이 참여하는 '성보전시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사찰유물(성보) 전시관 건립을 본격화했다.

성보전시관 건립 정부지원에 산 40여명이 지난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개 본

사 주지들은 지난 14일 회의를 갖고 건립추진위원장에 현해스님(월정사 주지) 간사에 보선(대흥사) 문명(은혜사)스님을 선임, 내년 시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성보전시관이 건립되는 8개 사찰은 용주 월정 수덕 해인 마곡 금산 대흥 선운사이다. (이경숙 기자)

## 부처님 땅에서 성도절을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4대명절 가운데 가장 거룩한 날인 성도절을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맞이하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80세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인도성지는 부처님의 체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시대를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지비의 실연이 무엇인지 일깨워 줄 것입니다. 1996년 새해,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입체한 인도성지 참배로 큰 감동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 발자취따라 '우리도 부처님 같이'

#### '현대불교 인도 성지순례단'... 28일 접수마감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출발일정	1차 : 96. 1. 17
협찬	해초여행사·수미산여행사 (성지순례 전문업체)	2차 : 96. 1. 24	3차 : 96. 1. 26
성지	인도·네팔 (벵골, 보드카, 라즈기르, 바이탈라, 푸시나기라, 기림정사, 룸비니 등)	4차 : 96. 1. 31	5차 : 96. 2. 4
일정	9차 10일	여행조건	● 1급호텔 기준 2인1실 (성지지역은 현지 최고 수준)
참가비	155만원(여권 인자대 45,000원 별도)	● 전일정 식사포함(가내식포함)	● 성지 지역·한식제공
접수마감	12월 28일	● 해외여행보험, 공항세, 인도·네팔 비자 수수료 포함	● 인도성지 전문 안내원 동행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기타문의 사항은 개별적으로 자세한 안내에 드립니다. (전화 (02)737-8881)

### 목어

"헬로우 폭시" "루비" "라이터·블렌" 인도에 가보니 거지나 다름 없는 아이들이 외국인들에게 벌레같이 달려들며 손을 내민다. 한국의 성지순례단은 너무나 가엾은 마음을 낸다. 대부분 불자들은 그 구걸을 외면하지 않고 루비(인도 화폐)를 쥐어 주던지 아니면 갖고있는 블렌·라이터 혹은 사탕·과자등을 준다.

다. 오히려 사탕을 같은 작은 선상이 그 아이들을 영원히 걸인으로 살게 할 지도 모른다. 꼭 들고 싶다면 부처님의 나라 어린이들을 위한 고단차원의 새로운 보시책을 세우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 인도에 가 보니...

"폭시"를 원하는 그들의 구걸에는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다. 그러나 그 복합이 스스로 씨앗을 받아서 할 수 없을 경우 스쳐 지나가듯, 언발에 오줌 누듯 단발적으로 복지를 뿌린들 그것은 작별할 수 없

한가지 더 유념할 일이 있다.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거룩한 가르침을 되새기는 불자들의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나 보니 성지의 성급함 또는 불상·탑 앞에 불전 풍경을 주저하지 않는다.

**특집 인도 속의 한국불교 14면**

**조계종 신도회 결성 난항 15면**

**사찰·신행단체 겨울 불교캠프 11면**



21세기의 시각 —  
듀폰의 눈은 깊고 넓습니다.

**200여 년 듀폰의 역사가 바로 첨단 기술의 역사입니다.**

1802년 시작된 듀폰 200여 년의 기업 역사에는 혁신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1903년 세계 최초로 민간 연구소 설립, 1938년 굴의 섬유 나일론 개발 등, 현재 22개국 70여 개 연구소를 통해 기초 생명과학에서 섬유, 화학, 농업, 전자, 에너지, 자동차, 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첨단 기술의 역사를 만들어 온 듀폰은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종합 화학회사로서 그 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듀폰은 건강한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안전, 환경 및 윤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터득하여, 오늘날 이를 기업 정신으로 이어받아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과학적으로 — 듀폰의 21세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800여 종의 우수한 산업용 소재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듀폰은 고객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남다른 퍼트니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이 최고의 재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고객 최고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5여 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듀폰은 아전 및 울산 단지의 공장을 통해 국내 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물론, 수출 전진기로서 역할도 다하고자 혁신의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보다 좋은 제품을 추구하는 듀폰 — 21세기의 시각으로 세계를 만들어가는 듀폰의 눈은 깊고 넓습니다.

한국 듀폰  
☎ 135-08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번지 4층 4-15